

오동진의 전지적 시네마 시점

오동진
영화평론가



서소문 근처의 슈퍼 판매원으로 살아가는 40대 K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콩국수이다. 여름에는 꼭 서너 번을 먹어야 더위가 간다고 생각해 왔다. 마침 자신의 일터 주변에 서울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콩국수 집, J회관이 있다. 그러나 올해는 콩국수 앞에서 신중해졌다. 가격이 턱없이 올랐기 때문이다. 한 그릇에 1만6000원. 콩국수를 먹으려 갔다가 1만원짜리 김치찌개로 바꾼 적이 많다.

이런 K씨에게 영화 티켓이 1만5000원인 것도 비싸게 느껴지긴 마찬가지다. 그러나 콩국수에 비하면 그리 심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통신사와 카드 할인, 이런저런 혜택을 최대한 받으면 9000원까지도 내릴 수가 있다. 극장에서 이런 저런 욕망을 쫓아준다. 팝콘이나 음료를 가능한 먹지 않는 거다.

스타 배우 최민식은 최근 한 토크 프로그래머와 그 부분을 지적했다. 티켓 값 1만5000원에 대해 "비싸긴 하다. 둘이 가면 3만원이니까. 팝콘, 커피에 끝나고 맥주라도 한잔 하면 굉장히 부담되는 가격에 맞다. 여자 친구하고 데이트 하면 10만원이 훌쩍 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웃으면서 티켓 값을 좀 내리라고 했다. 다들 OTT로 돌아 서게 되는 현실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극장업계도 코로나 때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라 심정적으로 이해는 간다"는 말도 했다.

OTT와 극한경쟁 속 티켓값 부담돼
최민식 지적에 대학교수 "개런티 탕"

티켓값도 배우 몸값도 비싸지만
극장료·개런티는 다른 궤도의 사안

미국은 지역·시간·영화별 가격 달라
우리도 다양한 가격 스펙트럼 필요

카이스트 교수, 최민식 발언 논점 비틀어
최민식의 이날 발언은 티켓 값을 내리야 한다는 주장 보다 OTT와 극한 경쟁에서 티켓 값 문제로 관객을 잃지 않기 위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걸 카이스트의 모(莫) 교수가 논점을 비틀어 놓았다. 최민식에게 "출연료를 자기 영화 상영하는 극장을 위해 기부한 적이 있는냐"고 비난했다. 이 말은 마치 영화 입장권의 가파른 인상이 배우들의 고액 출연료로 인해 제작비가 높아진 걸 보전하려는 차원에서 관객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킨 결과라는 논리처럼 들렸다.

그 교수의 공격으로 최민식의 발언은 스타 배우들의 몸값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 갔다. 이제 티켓 값이 얼마가 적당한가 보다 스타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도 되느냐는 불만소리가 모아지게 됐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극장료 인상과 배우들의 개런티는 다른 궤도의 사안이다. 지구와 금성이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 교수의 최민식 발언은 대중들의 경제적 피로감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무리한 비판이었다.

중견 영화감독 Y(60)는 그 발언은 고소득자에 대한 비틀린 시선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최민식은 자신의 연기 능력과 스타성으로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돈을 번 고소득자일 뿐이다"라면서 "고소득자도 부당하게 번 돈이 아니라면 언제, 무슨 이슈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어쨌든 배우의 고소득이 문제처럼 인식되는 건 상당 부분 OTT때문이다. 할리우드 메이저 제작사



영화관 티켓 1만5000원 시대 이게 다 배우 비싼 몸값 때문?



1 '스타 워즈'에 출연한 이정재. 2 디즈니+ 드라마 '삼식이 삼촌'의 송강호.

의 대표 M씨(49)는 "OTT들이 한국 제작비, 특히 배우 개런티를 엄청나게 올려 놓은 게 맞고 그래서 제작비가 인상되었으며 그러다 보니 극장에서는 BEP를 맞추기가 어려운 건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면서 "그렇다고 그것이 티켓 가격과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코릴레이션(Correlation, 상관 관계)은 있을 수 있으나 카우질티(causality, 인과관계)는 아니다"고도 했다.

현재 OTT들의 배우 개런티 책정이 우려의 시선을 모으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 화제는 최민식이 아니라 송강호 때문에 거세지게 된 것이다. 송강호는 디즈니+가 지난 5월 공개한 드라마 '삼식이 삼촌'에서 회당 8억원, 16부작 전체 128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액수는 송강호 측에서 이렇다 할 반박이나 반발이 나오지 않아 기정사실화 됐으며 이후 영화계 안팎에서 '좀 너무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최민식에 대한 카이스트 교수의 비난 섞인 비판은 사실 그 이전 송강호 등 톱 스타들 몸값에 대한 불만과 시기, 질투가 뒤섞여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배우들의 몸값은 꽤나 정교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이 분야가 가장 발달한 곳은 역시 할리우드다. 할리우드는 통상 픽스드 샬러리(fixed salary)로 개런티를 결정한다. 전체 프로덕션 비용, 곧

전체 제작비의 몇 퍼센트를 상한선으로 두고 결정한다는 얘기이다. 예를 들어 '미션 임파서블'의 제작비가 3억 달러(3980억원)라면 10%, 그러니까 3000만 달러 선에서 주연급 개런티가 결정되는데, 톱 크루즈 같은 초A급 스타인 경우 여기에 백엔드 딜(back-end deal) 혹은 프로핏 파티시페이션(profit participation) 계약을 별도로 하게 된다. 일종의 러닝 개런티 계약이다. 특히 톱 크루즈 같은 세계적 배우의 경우 나라 별로 이 계약의 내용과 범위가 각각 따로 정해지게 돼있어 그 계약 과정에 전문 회계 변호인단이 개입할 정도가 된다. 결국 전문 학적인 개런티 수익을 가져 간다는 얘기다.

이정재의 '스타 워즈' 출연료는 넷플릭스 출세작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인기를 감안해 결정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정재가 톱 크루즈 급은 아니니 백엔드 딜 등 러닝 개런티 계약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할리우드에서 아직 '라이징 스타'이지 A 리스트 스타는 아니다. 다만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에서 회당 1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속편의 화제성에 따라 할리우드에서의 몸값은 차근차근 올라갈 것이다. 배우 측에서는 이런 '개런티 입소문'들에 대해 부인도 시인도 안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른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전법이다. 시인보단 부인을 안하는 것은 차체에 올라간 금액만큼 몸값을 책정할 수 있더라도 (소문을 그냥) 놔두면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이미지 관리가 병행된다면 과도하다고 비난 받는 출연료 책정 이슈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정사실화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동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전체 제작비에 연동해 주연급의 개런티를 결정하지만 나라별로 혹은 플랫폼 별(극장과 비극장, 특히 OTT)로 러닝 개런티를 섬세하게 짜는 수준은 아니다. 아직 그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정교한 사례 연구들이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법률과 제도의 영역을 손봐야 하는 문제다.

송강호 '삼식이 삼촌' 회당 8억원설
어찌 됐든 배우들의 개런티 문제가 티켓값 인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카이스트 교수의 발언 의도는 달랐더라도 티켓값 문제를 불필요한 논쟁으로 비화시킨 책임은 있어 보인다. 물론 티켓값은 비싸다. 배우들의 몸값도 물론 너무 비싸다. 하지만 전자에 대한 불만과 후자에 대한 불만은 성격이 다르다. 하나는 실물경제적 차원이고 하나는 욕망의 문제이다. 둘 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것들이다. 진짜 문제는 다양한 가격 스펙트럼이 없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주(州)마다, 시(市)마다 극장 값이 다르고 블록버스터 영화와 예술영화의 티켓 가격이 다르며 아침과 저녁, 주중과 주말 등 시간대마다 모든 가격이 다르다. 미국의 영화 티켓 값은 그래서 일률적으로 얼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값을 내리는 게 아니라 관객 스스로 가격과 영화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범위와 스펙트럼 차원에서 해결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논쟁이 계속된다. 유럽 예술영화를 수입해 오며 손해를 입은 적이 더 많은 영화사 C의 L씨(49)는 "티켓 값이 비싸서 영화 안보는 사람들이 많으니 예술영화나 독립영화 티켓 값을 내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서울 서당동에서 오랫동안 예술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배급사 이사 J씨(54)는 "예술영화의 가격을 내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정책적인 조치와 각종 지원 시스템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선다.

이런 상황에서 CGV 등 극장 측이 가격을 좀 낮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컬처 워크'를 만들고 특정 기간에 장당 8000원으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이런 실험들을 통해 극장 티켓료는 결국 합리화 될 것이다. 그 가격이 얼마로 책정될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콩국수를 마음껏 먹고 영화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시절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광주일보와 중앙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오동진 연합뉴스·YTN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 이후 영화주간지 'FILM2.0' 창간, '씨네버스' 편집장을 역임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컨텐츠마켓마켓 위원장을 지냈다. '사랑은 혁명처럼 혁명은 영화처럼' 등 평론서와 에세이 '영화, 그곳에 가고 싶다'를 썼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 제 보 청 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